

만남

2022년 8월
통권 210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특 쏘는 영성	-----	3
기도 맛들이기	-----	4
소공동체 모임 자료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5
영성의 숲	-----	8
영적 상담	-----	11
성경 속의 사람들	-----	13
축일을 축하합니다	-----	16
본당 전례, 본당 살림살이	-----	17
공동체 소식	-----	18
활동단체 모임 안내	-----	19
월 중 행사표	-----	20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1
미사안내	-----	22

《교황님의 8월 기도지향》

❖ 중소기업을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경제적, 사회적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작은 죄들(홍성남 마태오 신부님)

큰 죄는 아닌데 마음은 찢찢한 죄들, 보통 소죄, 작은 죄라고 합니다. 고해성사를 볼 정도는 아닌데 마음은 불편하게 하는 이런 죄책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하면서 그냥 넘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죄로 인한 죄책감은 마치 생선가시 같아서 목구멍에 걸리면 쉽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방 안에 쌓인 쓰레기를 털어버리듯이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심리학자 자렌의 자동칠판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칠판을 상상하고 거기에 자신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기록한 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심리적 노폐물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 상담가들이 자주 권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금 나에게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주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손바닥에 가시가 박힌 아이가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시가 빠져나가게 하는 것과 같은 치유법입니다. 네 번째 스스로 보속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선행을 함으로써 자신이 잘못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인데 이런 선행은 신속한 심리치유를 불러오기에 크게 장려되는 방법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일 경우에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과 완전함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신이 아니라 사람임을,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임을, 사람은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성숙해가는 진행형인 존재이지 완결되는 존재가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대유머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본당신부가 선종해서 천당 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나와서 자기를 반겨주리라 믿었던 주님은 안보이시고, 토마스 사도만이 나와서 자기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늘 성당 안에서 기도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신자들과 거리두기를 하고 살면서 자부심이 컸던 신부는 마음이 언짢아서 토마스 사도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나처럼 사제답게 산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이처럼 푸대접을 하는 것이냐” 했더니, 토마스 사도 왈. “자네가 그렇게 깨끗하게 산 것은 맞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네가 필요 없다고 하시고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득시글한 연옥에 상담해주러 가 계시네.” 그리고 의심스런 눈으로 본당신부를 보면서 “그런데 자네도 사람인데 한 점 하자도 없단 말인가” 하면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본당신부는 지금도 천당 문 앞에서 노숙을 하면서 토마스 사도의 심문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

♥ 분심 앞에서(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

제가 몸담은 수도회는 활동 수도회이다 보니 공동 묵상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미사 후 딱 30분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그 짧은 시간조차도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다양한 분심 속에 묵상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묵상이 끝날 무렵 너무나 송구스러워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 주로 드는 분심이 무엇인가 분석해봤습니다. 우선, 당면한 시급한 업무들이 의외로 큰 분심거리였습니다. 묵상 시간에 앉아있으면 주말 피정 일거리들이 저절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런 분심이 끝나자마자 다가오는 또 다른 분심이 있습니다. 아직도 떠올리기만 하면 분노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분’,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또 다른 그분, 수도회 걱정, 나라 걱정.... 이런저런 다양한 분심의 홍수 속에 앉아있던 어느 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툭 던져주셨습니다. “다 부질없단다. 다 지나간단다. 다 내려놓거라. 그저 오늘에 충실하거라.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거라.” 묵상이나 기도를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려고 자세를 잡기만 하면, 어김없이 달려와 우리를 힘겹게 하는 분심, 대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분심도 여러 종류였습니다. 의도적인 분심도 있더군요.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에 대한 열정이 처음부터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친교를 꿈꾼다면 공짜는 없습니다. 기도에는 열정과 정성, 몰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묵상에 임하는 우리에게 주님과 감미로운 만남을 위한 간절한 지향이나 의도가 조금도 없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자연스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 마련입니다. 제주도로 지리산으로 갯바위로 올레길로.... 그런가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떨칠 수 없는 분심이 있습니다. 기도만 시작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그분의 얼굴, 그때의 사건, 잘 나가던 내 인생을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은 그분.... 이런 분심 앞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떠오를 때마다 즉시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분심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처럼 바라보랍니다. 분심을 우리 각자의 영적 현주소를 파악하게 하는 도구로 바라보랍니다. 분심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합니다. 결국, 분심은 우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안내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이고 습관적인 분심은 주님 앞에 예의가 아니므로 언제나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기도 시간에 어떻게든 맑은 얼굴로 깨어있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겠습니다.

분심은 오늘도 내일도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와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분심을 주님 자비의 손길에 맡겨드려야겠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루카 12,32-38)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1장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저희에게 진리의 영을 내려주소서.
- ❖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당신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복음 12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2 32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작은 양 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33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도 쓸지도 못한다.

34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35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36 혼인 잔치에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37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38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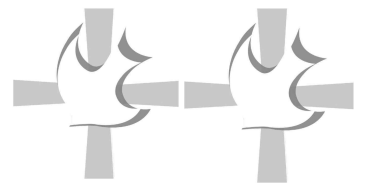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나눔 안에서 주님과 만남의 체험을 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에 대해 집착을 버리라고 오늘 복음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상 걱정(부와 명예, 관계의 소유, 현상 유지에 대한 고민)에 사로잡힌 이들은 소유로 인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거의 일생에 걸쳐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하느님께서 기꺼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보고(寶庫)인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을 것을 명하십니다. 그곳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도둑이 다가가지도 쏘이지도 않는답니다. 수님께서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즉, 정의로운 나눔을 말합니다. 이 나눔을 광의(廣義)로 해석해 본다면 단지 물질적인 나눔에만 국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시간, 생각, 달란트 등등 까지를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깨어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라고 말합니다. 리에 띠를 맨다는 것의 의미를 알려면 예수님 당시의 옷 입는 관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발꿈치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었으며 시중드는 사람은 편리하게 허리에 띠를 졸라매었습니다. 원래 허리에 띠를 매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주님께서 명한 행동 중 하나였지만(탈출 12,11),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신속하게 움직일 채비’ 또는 ‘봉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뜻하게 되었고(1열왕18,46;2열왕4,29;9,1;욥38,3;40,7), 신약성경에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주인을 맞이하는 종처럼 항상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가짐을 하고 살아야 함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 자신을 낮추어 이웃을 섬길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 놓는 것의 의미는 등불은 환한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우리의 잠을 쫓아 줍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작품인 우리에게 세상의 어둠을 밝힐 등불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함께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름은 우리 스스로가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품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59장 “너희는 가진 것 팔아”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특집] 믿을 교리 Q&A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불러 올리신 분, 성모 마리아. 마리아가 하늘에 올림을 받은 것은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의 구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이라는 희망을 전해준다.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아 ‘성모 승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짚어본다. 이 믿을 교리에 대한 내용은 마리아수도회 안중환(베다) 수사가 풀어준다. 안 수사는 저서 「복되신 여인 마리아」, 「마리아니스트 기억과 전망」, 번역서 「프랑스 학파 영성과 마리아」 등을 펴냈으며 ‘한국 마리아학회’ 창립 회원이기도 하다.

Q : 성모 승천에 관한 교리의 정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죠. 이 교의는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5세기에 이르러 정착된 것이죠?

A : 소수의 부정적 견해가 있긴 하나 전 교회가 이미 마리아의 영면(永眠)을 믿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승천 교의는 사실상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5세기에 이르러 정착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사생활에 대해, 즉 언제 나고 언제 영면하셨는지 알지 못하죠. 다만 정경에서 제외되어 오랜 세월 잊혀진 일부 외경에 성모의 탄생과 어린 시절 등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전승으로 성모의 양친과 성모 탄생을 축일로 기념해 왔고 영면 축일도 그 맥락에서 이해될 만합니다.

Q : 이에 대해 교회는 문헌을 통해 자세히 밝혔는데요. 비오 12세 교황은 성모 승천 교리를 교의 즉 믿을 교리로 선포하셨습니다.

A : 비오 12세 교황은 1950년에 반포한 성모 승천 교리에 관한 교황령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Munificentissimus Deus)을 통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거룩한 교부들과 신학자들의 이 모든 논증과 숙의들은 최종적 기초로서 성경에 입각한다. 성경은 하느님의 어머니를 우리에게 마치 눈앞에서처럼 당신의 신적인 아들과 내밀하게 결합되시고 그분의 운명에 항상 참여하시는

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고, 낳으시고, 젖을 먹여 키우시고, 두 팔로 들어 가슴에 품으셨던 그분께서 이 지상 생애 뒤에 아들로부터 영혼으로는 아니라도 육신으로 분리되셨을 것으로 보기에 거의 불가능하게 보인다. 우리 구속주께서는 …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어머니 또한 공경하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무덤의 부패로부터 훼손당하지 않게 보전하도록 할 만큼 커다란 영예를 꾸미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것을 실제로 하셨다고 믿어야 한다.”(덴칭거 3900,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그러나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2세기부터 동정 마리아께서 교부들로부터 새 하와로 제시되었다는 것이다.”(덴칭거 3901) 계속해서 교황께서는 “마침내 당신 특전의 최상의 화관으로서, 무덤의 부패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은 채 보존되셨으며, 또한 당신의 아들처럼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육신과 영혼으로, 천상의 지고한 영광으로 들어 올림을 받으시고, 거기서 세세대대 불사불멸의 왕이신 당신 성자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고귀하신 어머니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온 교회의 기쁨과 용약을 위하여 … ‘원죄 없이 잉태되신 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께서는 지상생활을 마치신 다음 영혼과 육신으로 천상 영광에 들어 올림을 받으셨다는 것이 하느님에게서 계시된 교의이다.’”(덴칭거 3903)

Q : 그리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전례개혁에서 바오로 6세 교황은 이렇게 이 아름다운 대축일의 의미를 반추하게 된 건가요?

A : “8월 15일의 대축일에는 마리아의 영화로운 승천을 기념합니다. 이 축일은 마리아의 완전하심과 복되심, 동정의 몸과 흠 없는 영혼이 누리시는 영광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음을 기념하는 축제일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교회와 전 인류에게 그 바라던 종국적인 희망이 실현됨을 보여주는 이미지와 위로의 증거를 나타내는 축일, 즉 ‘같은 피와 살을 지니신’(히브 2,14; 갈라 4,4 참조) 그리스도께서 형제로 삼아주신 모든 이들이 마침내 이 총만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기뻐하는 축일입니다.”(마리아 전례6)

Q : 성모의 원죄 없는 잉태에 이어 승천 교의에 관해서도 규정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죠.

A : 제1차 바티칸 공의회 때부터 수많은 추기경과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교의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예수와 불가분의 인물이고 예수의 영광 속에 함께 하는 모친입니다. “예수를 잉태하여 낳으셨고 양육하셨으며 양팔로 가슴에 안으셨던 마리아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을 뜨셨다 하더라도 아드님과 영육 간에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은 불가하다.” 이 교의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마리아가 이미 천국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Q : 비오 12세 교황이 성모 승천 교의를 선포하신 또 다른 근거는 외경이 아니라 교부들의 가르침인가요?

A : 비오 12세 교황은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 콘스탄티노플의 제르마노 등 교부들의 정신을 받아들여 성모 승천 교의를 완성했습니다. “아들을 낳으실 때에 아무 흠 없이 동정성을 간직하신 그분께서 사후 당신의 육신을 아무 부패 없이 간직하셔야 마땅했다. 태중에 창조주를 모셨던 그분은 하느님의 집에 거처하셔야 마땅했다.”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록한대로 당신은 ‘아름답게 나타나시고’ 동정인 당신의 육신은 온전히 거룩하시며 온전히 정결하시고 온전히 하느님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육신은 무덤의 부패를 모르고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시면서 불사불멸의 빛 속에서 변모되어 새롭고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어 온전한 해방과 온전한 생명을 누리셔야 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제르마노 또한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상, 성모 승천 교의는 신자들에게 성모의 죽음과 장례 및 부활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리아의 육체와 영혼이 천상영광에 피승천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승천(Ascension)과 성모의 피승천(Assumption)에 대한 차이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모가 오르신 천상 영광은 당신의 아들의 영광으로 인한 성모 개인의 특전(singular privilege)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의 참여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와 마리아의 밀착성은 어느 경우에도 깨질 수 없는 동반자적 유대로서, 성모 승천 교의가 시사하는 바는 예수와의 관계는 어느 여건 아래서도 이탈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모 승천 교의는 교회의 새로운 존재 양식에 대한 선포인 셈입니다. 곧 성모 승천 교의는 교회 승천의 예시입니다.

질문

떠나신 신부님과 새로 오신 신부님이 너무나 달라 헛갈립니다. 전임 신부님은 사람이 좋으셔서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같이 잘 노시는 바람에 본당 어른들로부터 편잔을 자주 들으시곤 했는데, 그래도 신자들은 빈틈이 많은 신부님 흉을 보면서도 늘 만나면 본당 신부님 이야기로 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오신 신부님은 바늘이 들어갈 틈 하나 없이 완벽한 생활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웬지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늘 기도하고 단정하게 다니시고 강론도 매섭게 짧게 하시는데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신부님의 말씀에 거부감이 생깁니다. 너무 야단을 많이 치시는 데다 은근히 당신 자랑을 하면서 전임 신부님 흉을 보는 것에 거부감이 생깁니다. 아이들도 신부님이 강론 때마다 지옥 벌을 이야기한다며 어린이 미사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신자 여러분이 새로 오신 신부님에게 거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듯합니다. 우선 강론 내용에 문제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교리를 가르칠 때는 하느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작은 죄라도 지으면 지옥 벌을 면치 못한다는 식으로 내용이 극과 극을 달리는 경우 듣는 사람들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중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중 구속(Double Bind)은 부모 특히 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어머니와의 강한 정서적 관계에서 꿈쩍을 못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사물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고 질문을 하고 싶어도 그 질문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망칠까 봐 두려워서 질문을 못 하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이중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종교인들과 신자들 사이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병리적 현상입니다. 종교인들이 자기의 감정적 문제를 신자들에게 전가하고 야단을 치거나 몰아붙이거나 하는 것은 그런 종교인들이 가진 심리적 문제 때문입니다. 자기 안의 모순을 폭력적인 언어로 신자들에게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본인이 스스로 완벽하다고 하는 종교인들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종교인들도 사람인지라 누구나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열두 제자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지요. 교회에서 성인으로 불리는 분들이 인격적으로 완벽한 분들이었는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문제를

안고 산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고 어떤 사람이 문제 어른이 되는가?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과 고마운 마음을 갖는 분들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반면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자기도취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문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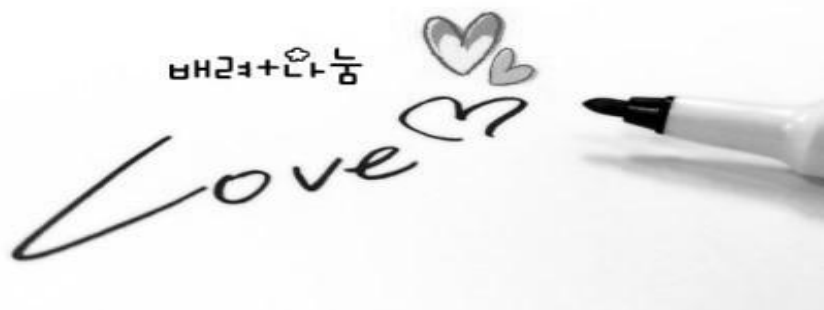
그럼 성인과 문제 어른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가? 성인들은 자기 문제를 보고 다듬느라 남의 문제를 볼 시간이 없지만, 문제 어른들은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자기 문제는 볼 생각도 안 하고 남의 문제를 갖고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우리 교회 미사에 ‘내 탓이오’라는 기도문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 탓, 내 문제를 보는 사람은 참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늘 남의 탓이나 하고 있으면 종교인의 복장을 했을지라도 내면은 세속화된 구정물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임 신부님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건강한 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떠난 신부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을 시로 잘 표현해 주신 이해인 수녀님의 ‘용서를 위한 기도’의 일부입니다,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 하루 해 지기 전에 / 진심으로 뉘우치고 / 먼저 용서를 청할 수 있는 / 겸손한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 잔잔한 마음에 거센 풍랑이 일고 /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부끄러움에 /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될지라도 / 끝까지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 사랑을 넓혀가는 삶의 길로 / 저를 이끌어주십시오 주님 // 너무 엄청나서 차라리 피하고 싶던 / 당신의 그 사랑을 조금씩 닦고자 / 저도 이제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렵니다’

이처럼 자기의 약함을 알고 그 약함을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라도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 성경 속의 사람들 - 요 나 (이용권 안드레아 신부님)

홍수로 세상이 물로 가득 찼을 때, 노아는 물이 빠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 보냅니다. 비둘기가 물고 온 올리브 잎을 보고 물이 빠져 마른 땅이 드러났음을 알게 됩니다(창세 8장). 비둘기는 여기서 하느님의 진노가 가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상징, 바로 희망의 메신저가 됩니다.

‘비둘기’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다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느님(창세 8,1)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은 죄에서 벗어나고 하느님은 당신의 진노를 거두십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요나가 그 주인공입니다.

‘요나’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요나 1,1)라고 소개되는데 같은 말이 2열왕 14,25에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가 ‘갓 헤페르 출신’이라 하는데,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가 같은 예언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과거의 한 예언자의 이름을 따서 후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있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립니다. “일어나 가라”(요나 1,2)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죄악이 치솟아 오른 니네베를 벌하겠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다(4,2). 주님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며, 벌하시다가도 쉬이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다.”(4,2) 그래서 그는 차라리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을 택합니다. 그는 ‘주님을 피하여 달아납다.’(4,3.10) 그가 하느님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에 대해 요나서는 ‘내려간다.’고 표현합니다. 요나는 야포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탑니다. 그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드러누워 깊은 ‘잠이 듭니다’(히브리말로는 내려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셔서 배가 난파의 위기에 처합니다. 배에는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아 알아봅니다. 그러자 배 밑창에서 자던 요나가 나옵니다. 무슨 일인가 묻는 그들에게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यो. 나는 바다와 물을 만드신 주 하늘의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यो.”(1,9) 그의 이 대답은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모순됩니다. 그는 하느님을 경외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폭풍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1,12) 모른 척 잠이나 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요나의 제안대로 그를 바다에 던져 넣습니다. 심청이가 인당수의 거센 물결을 가라앉혔듯이 요나가 물에 들어가자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과정을 목도한 배에 탄 이들, 폭풍 앞에서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던 이들’(1,5), 요나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모르던 그들(1,6)이, 요나를 물에 던질 때 ‘주님’이라며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느님께 간청하고 바다가 가라앉자 주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제물을 바치는 이로 변화됩니다.)

주님은 다시 ‘큰 물고기(고래가 아닙니다!)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2,1) 하십니다. 요나는 사흘 밤낮이 지나서야 주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요나의 기도가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아직 물고기 배 속에 있는데, 이미 주님께서 구원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2,7ㄴ). ‘주님을 기억하는’(2,8) 순간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주님의 것’(2,10), 곧 구원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도 함께 고백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갔음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물고기를 시켜 그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십니다(2,11). 하지만 요나에게는 아직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하느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일어나 가라.” 요나는 니네베로 들어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사십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3,4)이 짧은 선언 하나가 도시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3,5) 임금부터 짐승까지 모두가 회개의 표지인 자루옷을 입고 단식을 하며 하느님께 부르짖습니다(2,5-8ㄱ).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아섭니다.’(2,8ㄴ.10ㄱ) 그러자 하느님은 당신의 진노를 거두십니다(2,10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요나와 하느님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요나의 투정이 터져나옵니다(4,2). 그는 ‘화를 내고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달라고 합니다.’(4,1.3) 하느님은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보라고 요구하십니다(4,4). 그러면서 아주까리를 통해 요나를 깨우치려 하십니다. 하느님은 더위에 고생하는 그의 머리 위로 아주까리가 자라나 그늘을 만들게 하십니다. 요나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주님은 벌레 하나를 보내셔서 아주까리를 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바람까지 보내십니다. 요나는 다시 한 번 죽겠다고 외칩니다. 다시 그가 화내는 것이 옳은지 물으시는 주님께 요나는 “옳다 뿐입니까?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4,9ㄴ)라고 반항의 말을 쏟습니다. 주님은 잠깐이면 사라지는 식물을 동정하는 그를 지적하시며, 당신의 사랑 - 니네베라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동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역설하십니다.

요나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요나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는지, 수궁했는지는 말해지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어떤지 묻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배타적 입장을 취하는 이들, 하느님의 자비를 고백하면서도 자비롭지 못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정당한지 묻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하느님의 뜻을 알면서도 더 멀리 달아나고 자꾸만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깊이 있게 살펴볼 일입니다.



❖ 8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리디아	손 수 민	18일	헬레나	현 영 애
8일	도미니코	김 대 현			이 미 용
		김 치 수	23일	로사	백(이)영자
10일	도미니카	배 성 우			윤 혜 진
		심(김)선옥	24일	필립	최 종 금
11일	라우렌시오	우 동 천			해준
15일	수산나	노 정 자	27일	모니카	Heifler
18일	클라우디아	서 수 진			남궁춘배
		정 마리아	28일	아우구스티노	손 수 희
		김 춘 옥			윤 예 진
		김(이)영희			이 석 우
		이 지 연			이 철 우

❖ 8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마리아	김일자(B) 황치숙(B)	18일	글라라	전영웅(H)
10일	테레사	고희지(B)		헬레나	박선자(H) 설윤자(O)
11일	수산나	강민정(B)	22일	셀리나	김신자(H) 김세린(H)
	알레나	배 알레나(B)	23일	로사	정지연(H) 최 랑(O) 백일순(H)
15일	마리 스텔라	정은찬(H)	27일	모니카	임소영(O)
	스텔라	부지우(O)	28일	아우구스티누스	서선영(B) 고찬연(B)
	마리 스텔라	강주희(H) 김세담(H)			

❖ 8월 성가번호 ❖

8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7일	21	342	169	77
14일	20	216	496	23
21일	34	219	175	65
28일	337	212	165	23

❖ 8월 전례 봉사 ❖

8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7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	4구역
14일	이정훈(요나스) 전우연(아네스)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	요셉 마리아
21일	청년회	청년회	*	청년
28일	이경구(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	1구역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7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진헌납금(7월 17일 기준)

강신행, 윤석순, 권말숙, 강순행, 최장용, 영희 Eggerstedt, 김민옥, 이정수, 김경미, 최순남, 손수희, 현영애, 심동근,

❖ 계좌 입금(7월 20일 기준)

허두옥, 이명원, 김치수, 현영애, 이공종, 송문규, 허길조, 최현봉, 김유석, 육종인, 허선애, 이영원, 정정숙, 이성원, 김진호, 이석우, 옥수 Ranitzsch, 이경규, 김동수, 백정선, 김원자, 배성우, Caroline Tunas, 강일남, 최종금, 최성자, 춘옥 Zerbock, 남궁춘배, Alice Eilinghof, 허채열, 김부남, 김대현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7월 22일 자 통장 잔액은 22.778,34유로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8월 15일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19시에 만남성당 1층 강당에서 대축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그리고 이날은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성모님께 기도하며, 민족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2. 8월 9일 화요일 저녁미사 후에는 꾸리아 월례회가 있습니다.
3. 8월 25일(목) 17시 30분 만남성당에서는 연령회 월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 새로운 자진 헌납금 계좌에 대해서

자진 헌납금 증명서(스펜덴 증명서) 서류 확인을 간소하기 위하여 함부르크 교구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모든 교우분들이 계좌로 자진 헌납금을 송금해 주시기를 지시하였습니다. 자진 헌납금 수입과 그 외 수입금을 구분하기 위하여 스펜덴 증명서를 교구 계좌로 송금을 해 주시는데, 수입금 관리는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 합니다. 현재 공동체 계좌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교구 새 계좌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Spendenkonto des Erzbistums Hamburg

Bankinstitut: DKM Darlehnskasse Münster eG

IBAN: DE37400602650000005151

BIC: GENODEM1DKM

StichWort: Spende Koreanische Mission

앞으로 공동체 자진 헌납금은 위 계좌로 송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StichWort: Spende Koreanische Mission**을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계좌로 자진 헌납금을 송금하신 분들은
송금 후 공동체 총무 이정훈(요나스)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안나)에게 송금하신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8월 지방공동체 미사는 6일(토) 브레멘, 20일(토) 하노버에서 봉헌합니다.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미사는 8월은 쉬고 9월에 있겠습니다.

사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최영숙(데레사)
				부회장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총무	이정훈(요나스)
주 일 학 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 비 자 교 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민음의 샘 Cu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김영희(클라우디아)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권지연(안드레아)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r. (정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이가나(마르가리타)
구 역		1구역	반장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반장		
			총무		
		4구역	반장	이순자(마리아)	
			총무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신지혜(체칠리아)	
			부회장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8월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일	단체행사	비고
1	월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주교 학자 기념일		
2	화			
3	수			
4	목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		
5	금			
6	토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브레멘 공동체
7	일	연중 제19주일	사목회	
8	월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		
9	화		꾸리아	
10	수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		
11	목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		
12	금			
13	토			
14	일	연중 제20주일	청년회 복음 나눔	
15	월	성모 승천 대축일	19시 대축일 미사(만남 1층 강당)	광복절
16	화	연중 제20주간 화요일		
17	수			
18	목			
19	금			
20	토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기념일		하노버 공동체
21	일	연중 제21주일		
22	월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23	화			
24	수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25	목		연령회 월례회	
26	금			
27	토	성녀 모니카 기념일		
28	일	연중 제22주일		
29	월	성 요한 세례자의 수난 기념일		
30	화			
31	수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리니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mann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이 재 혁 안드레아 hmannam@gmail.com
본당 신부님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4시 30분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